

쇄신 칼자루 쥔 김상곤 위기의 새정치 구할까

계파 갈등 내홍 수습

공천 혁신이 성공 ‘열쇠’

한시기구…회의적 시각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4·29 재보선 전패 후폭풍으로 내홍을 거듭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을 위기에서 구해낼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그가 어떤 식으로 쇄신작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홍 수습 등 내년 총선을 앞둔 당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적쇄신=김상곤 위원장이 맡은 ‘조계파 혁신기구’는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공천 혁신을 통한 인적쇄신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의 저항을 뚫고 기득권에 과감히 철퇴를 내리면서 고강도 쇄신의 칼을 휘둘러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문재인 대표는 공천, 인사, 당무 혁신은 물론 혁신위 인선 및 운영에도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당 내외에서는 혁신다운 혁신에 나서라는 주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미 조국 서울대 교수는 ▲도덕적·법적 하자 있는 인사들의 출마 배제 ▲호남 현역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옹호 등 파격적인 쇄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혁신위원장이 손에 피를 묻혀야 할 정도로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며 “빠아프지만 살을 도려낼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외에서는 교육계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해온 김 위원장이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 등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제1야당의 환부에 거침없이 ‘메스’를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계 넘어서야=혁신위가 강력한 쇄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혁신의 전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시적 기구인데다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공천 혁신 방안만 내놓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집행기구인 최고위가 당무·인사·공천 혁신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혁신위가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감한 공천 관련 사안마다 계파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외에도, 당내 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이를 헤쳐 나갈 것인지도 미지수다.

당내 계파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혁신위원 인선도 문제다. 당장, 진노 인사를 배제하면서 혁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출신인 김 위원장이 호남 물갈이에 선봉을 서는 것도 부담이다. 특정 지역 물갈이론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대표, 조국 교수, 박지원 의원의 거부에 따라 네 번째로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도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주 당 지도부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조국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해외채화 성화맞이 행사에서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왼쪽)이 조병만 성화봉송단장에게 성화를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대만 1만9000km 돌아 U대회 해외성화 광주 도착

D-38 오는 7월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밝히 줄 해외성화가 1만9000km를 돌아 무사히 광주에 도착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외 성화를 인계받은 뒤 공항 밀레니엄홀에서 해외 성화맞이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안전 램프로 봉송된 해외 성화를 성화봉에 접화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성공적인 봉송을 축하했다.

대학 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지난 18일 채화된 성화는 차기

인천공항서 성화맞이 행사

내달 2일 무등산 성화와 합화

하계U대회 개최자인 대만 타이베이시를 거쳐 국내로 봉송돼 광주에 도착했으며, 다음달 2일 광주 무등산 장불재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화하게 된다. 합화 전까지는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 U대회 조직위 사무국 1층내에 안전램프(사진)에 담겨 보관·전시된다.

무등산에서 합화한 성화는 다음달 4일 광주U대회 조직위를 출발, 21박 22일간



성화는 전국 3천700km를 돌아 개최식이 열리는 오는 7월 3일 광주U대회 주경기장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 17개 시도 60곳을 거치는 본격적인 성화 봉송이 시작된다. 국내 성화봉송에는 소녀시대의 수영, 피에스타의 재이 등 걸그룹과 함께 대학생·일반인 3150명이 주자로 나선다.

에 도착하며 특별 주자가 성화대에 최종 점화한다.

U대회 조직위는 또 국내 성화봉송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성화성봉 계획이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일부 일정을 조정해 남북 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1만9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무사히 와준 성화봉송단에 감사 드린다”며 “성화는 빛 ‘광(光)’자 모양의 성화봉송로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광주U대회를 전 국민과 교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상급식·혁신학교…교육개혁 아이콘

김상곤은 누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진보진영 교육계 내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급진적 개혁적 교육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연임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사퇴,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으나 김진표 전 의원에 패했다. 또 지난해 7·30 수원을(권선) 재선거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락공천 받은 백혜련 변호사에 밀렸다.

이후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창립, 정치적 재기를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겸손한 스타일이지만 결단력이 있다는 게 그를 아는 정치권 인사들의 평이다.

김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었던 이종걸 원내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으며 안철수 전 대표와도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전 교육감은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을 주도했고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jkpark@

삼성전자 광주U대회 공식후원…전자제품 9000대 지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전자부문 공식 후원사로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후원 기념 및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광주U대회 조직위와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조직위원장,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소비자 가전부장), 이인용 홍보담당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대회 최상위 후원등급인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로 참여해 선수촌 등 U대회 시설물에 필요한 에어컨과 TV, 냉장고,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제

U대회조직위와 후원 협약

품 조성 다양한 소비자 행사

품 8종 9000여 대를 헌물로 후원한다.

삼성전자는 지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하나로 광주 U대회 후원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광주U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젊은 대학 선수에게 글로벌 톱 브랜드인 삼성의 우수한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후원기념 행사로 오는 6월부터 진행되는 성화봉송 행사에 고객 참여

기회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성화봉송 부주자 선별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호남지역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제품 구매 후 응모하면 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후원기념으로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가 생산되고 있다. 5월 프로모션 기간 구매 고객에게는 제품별 포인트, 에어컨 특별행사, 추가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삼성전자가 광주 U대회를 후원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주에서 생산하는 생활가전제품이 지역 고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U대회 기간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광주시와 한전이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U대회 단체입장권 구매 협약을 체결하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는 U대회 경비경호 경찰관 발대식도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6/7F
라식센터

4/5F
수술
센터

2/3F
외래진료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발달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박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의료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